

몇 년간 고이 기른 머리카락부터 한 푼 두 푼 모은 기부금까지,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며 이웃사랑, 전우사랑을 실천하는 장병들의 사연이 줄을 잇고 있다.

여전사 단발이 더 아름다운 이유는...



▲ 육군12사단 이여린(왼쪽) 하사와 홍옥주 하사가 기증할 모발과 함께 보낼 편지를 작성하고 있다. 부대 제공

“기뻐할 아이들 생각에 4년의 기다림 행복했다”

육군12사단 김경민 원사·이여린·홍옥주 하사·김은유 중사 소아암 환우에 머리카락 기증... “모발 관리해 기증 이어갈 것”

육군12사단에서는 부사관들이 소아암 환우를 위해 소중한 기른 머리카락을 기증해 감동을 주고 있다.

사단의무대대 김경민 원사와 이여린·홍옥주 하사, 공보정훈부 김은유 중사(진)가 지난 21일 소아암 환우용 특수가발 제작·기증단체 ‘어머니(어린 암 환자를 위한 머리카락 나눔) 운동본부’에 소중한 기른 머리카락과 직접 쓴 편지를 전달한 것. 이들이 모발기증을 결심한 계기는 다양하

다. 김 중사(진)는 학창시절 지인의 백혈병 투병을 통해 모발기증 제도를 알게 된 후 지난 5년간 3회에 걸쳐 약 1m(2016년 35cm, 2019년 30cm, 2020년 25cm)의 머리카락을 기증했다.

입대 후 21년간 사랑의 도시락 사업, 월드비전 등에 정기후원을 해온 김 원사는 지난해 우연히 ‘기증한 머리카락이 소아암 환자들의 항암치료 과정에서 사용하는 가발에 이용된다’는 기사를 보고는 모발 기증을 결심했다.

이 하사와 홍 하사까지 동참하며 기증 인원이 늘어났다. 이 하사는 입대 전부터 각종 봉사활동과 함께 꾸준한 헌혈을 실천, 지난해 강원혈액원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바 있다. 홍 하사도 매달 굿네이버스에 정기 후원을 하는 등 평소에도 어려운 이들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왔다.

모발을 기증하기 위해서는 염색과 파마를 하지 않은 채로 머리카락을 25cm 이상 길러야 하기에 기증을 결심했다고 해서 바로 행동에 옮기는 게 어렵다. 이들 모두는 소아암 환우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짧게는 1년, 길게는 4년간 머리카락을 관리해 왔다.

김 원사는 “긴 머리카락을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가발을 받고 행복해지는 아이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기쁜 마음으로 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머리카락을 기르고 관리해 모발 기증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중사(진)도 “모발을 기증할 때마다 오히려 내가 더 큰 행복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동참할 수 있도록 모발 기증을 권유하는 한편 환우들의 쾌유를 기원하며 기증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한영 기자

소아암 환우들을 돕기 위해 모발기증에 나선 육군12사단 홍옥주 하사와 김경민 원사, 김은유 중사(진), 이여린 하사(왼쪽부터)가 기증할 머리카락과 직접 쓴 편지를 들어 보이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부대 제공



“선배들 덕 지금의 내가 있어... 후배들 교육에 쓰이길”

육군22사단 박승만 상사 육군부사관학교에 300만 원 기부 “교육·복지·세미나 지원 등 활용”

육군22사단 전승대대 화생방통제부사관 박승만 상사는 정예부사관 육성을 위해 ‘육군부사관학교발전기금’에 300만 원을 기부하며 전우사랑, 후배사랑을 실천했다.

부사관학교 교육 중이던 지난 9월 발전기금의 존재를 알게 된 박 상사는 정예 부사관 양성에 도움을 주는 제단의 활동에 동참하고 싶다는 마음에 현역 부사관으로서의 적잖은 금액의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

박 상사의 기부는 지난 2014년 육군훈련소에서 한동안 훈련부사관으로 교관 임무를 수행한 경험도 작용했다. 박 상사는 “훈련부사관을 하면서 올바른 인성과 리더십을 갖춘 부사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선배 교관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처럼, 후배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올해는 2000년 7월 훈련부사관 제도가 도



육군22사단 전승대대 박승만(왼쪽) 상사가 육군부사관학교 고급리더과정 교육 수료식에서 부사관학교발전기금에 300만 원을 기부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부대 제공

입된 지 20년이 되는 해기에 기부의 의미가 커졌다. 기부금은 부사관학교의 정예 부사관 양성을 위한 교육·복지, 전공 부사관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부사관학교발전기금 정희성 이사장(제28

대 부사관학교장)은 “지난 10년간 제단은 전투력 발휘의 중추가 되는 부사관 양성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왔다”며 “현역 부사관이 큰 금액의 기부금을 낸 것은 이례적인 일로, 소중한 기부금은 후배들을 위해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최한영 기자

나눔, 생활처럼 실천한 ‘국민의 군’

해병대9여단 허성희 중사 400만여 원 기부·76회 헌혈 “국민 생명 살리는 나눔 계속”

해병대9여단 군사경찰대에 근무하는 허성희 중사는 꾸준한 기부와 헌혈로 사랑 나눔을 실천해 귀감이 되고 있다.

허 중사는 지난 10여 년간 어려운 이웃을 위해 400만여 원을 기부하고, 76회나 헌혈하는 등 ‘국민의 군’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허 중사의 기부는 ‘당신의 적은 돈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TV 후원광고를 접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유니세프, 한국사회복지사협

회, 대한적십자사 등 단체에 꾸준한 기부를 이어왔다. 이뿐만 아니라 포항지역 지진과 강원 산불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왔다.

또한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데 작게나마 기여하고 싶다는 바람으로 지금까지 76회의 헌혈에 참여해 지난 2018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유공 금장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이렇게 모은 헌혈증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헌혈 수급난 해소를 위해 제주혈액원에 기증했다.

허 중사는 “군인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도움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완수하고, 국민을 위한 사랑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노성수 기자



평소 기부와 헌혈로 이웃사랑을 실천해 온 해병대9여단 허성희 중사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은 헌혈유공 금장과 월드비전 후원 10주년 기념 증서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부대 제공

“군인으로서 당연한 일”

육군15사단 독수리연대 성동욱 중위 혈액질환자에 조혈모세포 기증

육군15사단 독수리연대 성동욱 중위는 생면부지의 난치성 혈액질환 환자에게 조혈모세포를 기증했다.

성 중위는 최근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서 조직적합성환원이 일치하는 환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정밀검사를 거쳐 조혈모세포를 기증했다. 지난 2018년 혈액암 투병 중 인 친구를 돕기 위해 조혈모세포 기증자로 등록한 지 2년 만이었다.

조혈모세포는 ‘혈액을 만드는 어머니 세포’를 말하며 정상인 혈액에 1%가량 존재하는 줄기세포다. 백혈병, 혈액암 등의 난치성 혈액질환을 앓는 환자가 치료받기 위해서는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아야 한다. 국내 조혈모세포 이식대기자는 4000명이 넘지만, 타인과 조직적합성환원이 일치할 확률은 2만 분의 1로 낮아 많은 기증 참여가 필요하다.

성 중위는 “건강한 신체를 가진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기증받은 환자가 꼭 완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한영 기자



육군15사단 독수리연대 성동욱 중위가 생면부지 환자에게 조혈모세포를 기증한 뒤 병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제공=노성수 대위